제3차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4:00-15:30	기 록 자	최가해
참석자	김용운 위원장, 방영희 부위원장, 김수정 위원, 정승원 위원, 이윤주 위원(박주광 주무관 대리참석), 윤상은 위원, 이광수 위원, 최가해 위원(간사)	장 소	복지관 4층 소회의실
주요 안건	제3차 운영자문위원회 안건		

회의내용	주요 안건	**1안 - 보호작업장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보고(건)** **2안 - 보호작업장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3안 - 기타사항**
	보고자 (최가해 간사)	**1안~3안 보고**
	김용운 원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보호작업장에서 열심히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중 보고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 위원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위원회의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광명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설들을 보면 생산에 집중돼서 프로그램을 잘 못 하던지, 프로그램은 하는데 생산 쪽이 약하다 던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광명보호작업작은 이 두가지를 다 모범적으로 잘 해주시고 있어서 좋습니다. 직원들의 노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영희 부위원장	네, 실제적으로 광명이 맞춤 프로그램이나 자치활동 같은 것들을 잘 하고 계셔서 저희 법인에서도 감사를 나왔을 때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원봉사센터랑 협약을 맺고 연계를 해서 저희 이용인들이 봉사자로서 직접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나온 작품들을 후원도 하는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원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혹 직원들이 무리가 되진 않는지 궁금하네요.
	이광수 위원	이제 저희 보호작업장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이 많다보니 좀 더 유연하게 사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내용	김용운 위원장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것과 해냈을 때의 보람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장애인이용인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취업해 나가서 자기 일자리를 갖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는 부분들을 보면 깜작 놀랄 때도 많습니다.
	이광수 위원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때마다 제빵실에서 매번 했던 것 말고 뭐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검색도 하고 시장조사도 해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앞서 발표자가 발표한 것처럼 오란다 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영희 부위원장	저희 직원들과도 시식도하면서 품평도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 시설장 모임을 갔을 때 홍보로 가져다 드렸는데, 그 나이대 이제 어릴 때 먹던 오란다 맛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승원 위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 제과제빵 매출이 작년대비 113.5%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방영희 부위원장	제빵은 이제 올랐는데 보나카페 중에 광명시청점의 매출이 많이 하락한 거 같은데, 이유가 시청 앞에 노인 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오픈을 해서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정승원 위원	또,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 카페를 운영하는 다른 곳들도 보면 상사들이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눈치가 보여서 잘 안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더니 매출이 확 오른다고 합니다.
	보고자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나카페 시청점이 1호점이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이 하락하는 것이 주변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는 것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정 위원	지금현재 보나카페의 경우 시청 지하1층 민원실 내에 있고, 노인일자리 카페는 시청 정문에 노출돼있는 환경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카페가 지하주차장에도 있어서 총 2개가 새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경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나카페의 경우는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잘 잡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카페보다 일단 커피맛이 맛있어야 하

		고, 고정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잘 지켜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최선 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박주광 주무관	제가 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이상 일 때만 고용장려금이 나오는 건가요?
	방영희 부위원장	일단 저희 법인차원에서 제가 고용장려금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 임금 적용예외가 사실 보호작업장에는 없습니다. 법인의 다른 시설 쪽에는 워낙 중증이 많아서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받지만 그렇게 해도 똑같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는 해당되고, 혹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시설 중 광명복지관이 장애인 고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법인 차원에서는 의무교용률을 충분히 하고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광 주무관	네, 그럼 작년 세입이 좀 많이 늘었겠네요?
	방영희 부위원장	그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이렇게 고용장려금으로 받은 돈은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만 썼으면 좋겠다해서 법인에서 특별히 감사도 진행하고, 소급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월 된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인들 급여 나갈 때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곳들은 캠프나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네 저희가 받은 고용장려금은 장애인분들의 급여와 훈련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금액으로 2개월 급여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박주광 주무관	네 제가 이제 장애인일자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설들이야 워낙 투명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데, 다른 곳에서 고용장려금 부분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에 알아봤더니 신고내역에 대해 고용장려금이 나갔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만 파악하는 거지 지급 이후에는 그 사용 처리는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출처나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김수정 위원	사실 고용장려금 자체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써야한다고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처럼 법인에서 이거 자체를 장애인 사업에만 쓰라고 내려주니까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승원 위원	여기 법인은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 달라고 싸우는 곳들도 엄청 많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충당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평가 잘 받으셨죠?
	이광수 위원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체평가부분도 다 통과해서 감점된 거 없이 일단은 다 만점으로 끝은 났습니다.
	김수정 위원	평가위원으로 이번에 회의를 갔었는데, 보호작업장 우수 추천 시설로 사례에 추천돼서 아마 타 기관들이 견학을 오거나 할 겁니다.
	정승원 위원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시고, 지원사업도 따오시고 하면서 이 생산하고 프로그램하고 발란스를 잘 맞춰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굉장히 높아서 개인에 대한 그 사례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 위원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전원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더 이상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건의 의결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자 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든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자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